

# 추석 연휴 전주 곳곳 문화예술로 물든다

전주문화재단, 공예·전시·축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공연과 전시, 축제, 체험 프로그램을 두루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리는 ‘수요일 수많은 콘서트’로 문을 연다. 프로베온 공연은 브람스 음악을 소재로 한 음악극으로 꾸며져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어 전주공예품전시관 마당에서는 한국의 거문고와 프랑스 콘트라베이스가 함께하는 「거문고, 그 끝없는 여정」이 펼쳐진다.

더불어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오! 난 토끼 아니오!」가 앵콜 창극의 명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휴 기간 전주의 전시공간들은 다채로운 기획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전주천년한지관에서는 세 번째 기획전 「한지가 품은 마음의 자리, 지심처(紙心處)」가 이어지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전국 어린이 한지미술대회 전시가 열린다.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은 전국 어린이 한지미술대회 수상작 전시도 10월 한 달간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는 전국한지공예대전 수상작과 함께 초대작가전이 마련돼 한지 공예의 깊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 가나자와 공예인들과 함께하는 교류전이 진행돼 일본 공예인들의 예술혼을 엿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추석 연휴의 대표 무대는 역시 한지와 공예 축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는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이 열리며, 국제한지패션쇼, 전주한지운동회, 한지로온 밤, 각종 한지체험 및 시연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특히 미국, 캐나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 10개소에서 한지 옷놀이, 한지 제기차기, 한지 딱지치기 체험이 이어진다.

한지산업지원센터 일원에서는 제4회 전주공예박람회가 열려 40여 종의 공예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오목대 전통정원에서는 공예주간 공예놀이터가 펼쳐져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맞는다.

전주공예품전시관과 오목대 일원에서는 추석 맞이 한가위 한마당 ‘들썩’이 마련돼 할인 행사와 무료 체험으로 흥겨운 명절 분위기를 더한다. 이 밖에도 전주천년한지관에서는 한지풀한가위 한마당이 열려 한지체험과 전통놀이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예술놀이터가 운영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지담론 토크가 열린다. 우리놀이터 마루담에서는 추석 전통놀이 마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경기전 전주사고에서는 조선왕조실록 포쇄재현이 이어져 전주가 지닌 기록문화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생생히 전달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추석 연휴 전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명절을 풍성하게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세대와 문화를 잇는 전주의 축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국가유산야행’ 특별한 가을밤 선사

국가유산 천년의 행진·풍류 한마당 등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 열려

가을밤의 정취가 내려앉은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진 ‘전주국가유산야행’이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문화예술공작소가 주관한 ‘2025 전주 국가유산야행’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경기전과 풍남문, 전라감영, 전주향교 등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졌다.

이번 야행은 평소 야간에는 관람이 제한됐던 경기전이 무료로 개방되고, 경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배치돼 전주야행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밤을 선사했다.

특히 역사 범위를 기존 조선시대에서 후백제까지 넓히는 한편, 전주올림픽 유치 테마를 함께 담아내 더욱 새롭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꾸며졌다.

전주야행의 대표 프로그램인 ‘잃어버린 백제

를 찾아서’에서는 참가자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견원 이야기를 듣고 스탬프를 모으며 특별 굿즈를 받는 등 즐거움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꼈다.

특히 올해 야행은 전주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은 특별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축제의 시작을 알린 퍼레이드 ‘국가유산 천년의 행진’에서는 전주야행 마스코트 태조와 야행이가 성화를 봉송하고, 전주의 역사 인물들을 상징하는 퍼포머들과 취타대가 함께 행렬을 이루어 눈길을 끌었다.

경기전 광장에서는 주제공연 ‘국가유산 풍류 한마당’이 펼쳐졌으며, 태권도 공연은 역동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무대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전라감영에서는 펜싱과 승마, 컬링 등 10여종의 올림픽 종목을 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도록 재해석한 체험 프로그램인 ‘전라관찰사의 탄생’이 열리기도 했다.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캐릭터로 변신한 배우들에게 조선과 올림픽의 이야기를 들으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올림픽 유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외에도 이번 야행에서는 전주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을 담아낸 △국가유산 전주의 소리를 담은 △향교괴담 △꽃밖의 국악 △후백제의 왕궁, 야간산성행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를 통해 야행객들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인식할 수 있었고, 전주야행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깊은 여운과 함께 기억될 역사·문화의 장’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권희성 기자



가을밤의 정취가 내려앉은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진 ‘전주국가유산야행’이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詩, 옛사람과 놀다’ 진안서 열려

전북시인협회, 전문시낭송가 향토 시인 작품 공연낭송

전북시인협회(회장 이형구)가 향토 시인의 작품을 공연낭송으로 연출하는 ‘詩, 옛사람과 놀다’를 지난 26일 오후 2시 진안문화회전당 마이홀에서 전북시인협회 사무처장 이정미의 공연시작 선언과 함께 진안군민을 모시고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는 진안군민은 물론 전춘성 진안군수, (사)신석정기념사업회 윤석정 이사장, 시를 무대에 올린 진안출신 시인 전병운, 허호석, 추원호, 한숙자, 전근표, 최옥경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무대에 올러진 시는 △진안고원/전춘성, △꿈터제 빠꾸기/전병운, △용담호·그리운 산하/허호석, △고향의 옛 추억/추원호, △당신을 보내면서/한숙자, △호박죽 김 싸먹는 여자/이재숙, 아비님! 하늘나라 그곳에도 꽃은 피었나요/전근표, △그대 내게 물으신다면/최옥경 등이 전문시낭송가의 감성목소리로 관객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연출은 여민문화공연 유미숙 원장이 맡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축사에서 “진안의 고을은 그 자체로 시적인 감흥을 안겨준다. 진안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지친 마음을 문화예술로 위로하고, 언어 예술과 우리 군



의 역사, 문화를 융합해 공연 예술로 선보여 줘서 감사하다”며 “오늘 공연이 모든 분들의 마음에 진안의 자연과 예술이 주는 아름다움이 오래도록 남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진안의 푸른 산과 맑은 물결은 오래전 선인들의 시심을 불러일으켰듯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감과 예술적 기운을 선사할 것이다”며 “오늘 이무대를 통해 옛사람의 숨결과 오늘의 감성이 만나서 진안의 자연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축하했다.

이형구 회장은 “한 편의 시가 내 이웃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해주는 소중한 비티민이 되었을 때 시인은 그제야 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고 한다”며 “이 무대는 묵묵히 진안 고을을 위해 글로서 대변해 준 진안 출신 시인들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진안=윤희태 기자

## 전주신진예술가지원 선정자 ‘정유진 작가 개인전’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화동사진미술관에서 전주신진예술가지원 선정자인 정유진 작가 개인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정유진 작가의 첫 개인전으로, 본격적인 예술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다.

이에 따르면 〈허구의 축으로 이어진 세계〉는 알고리즘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제공하는 매끄럽고 단조로운 이미지 속에서 작가가 느낀 이질감에 주목한다. 익숙함 뒤에 감춰진 불편

함을 시각화 한 작품 15점을 선보이며,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서 확장되는 감각과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정유진 작가는 “전주신진예술가지원 선정을 통해 예술가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첫 개인전을 준비하며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감각을 솔직하게 담으려 했다. 이번 작업이 관객과의 공감과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소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김제 벽천미술관 기획전시 ‘색(色)으로 물들고, 선(線)으로 남은’

김제시(시장, 정성주) 벽천미술관은 오는 2026년 3월 15일까지 가을의 시작과 함께 ‘색(色)으로 물들고, 선(線)으로 남은’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벽천 나상목 선생의 스케치와 회화 작품 25점을 선별해 선보인다. 빠른 손끝으로 그려낸 스케치의 선(線)은 순간의 생생함을 전하며, 담담한 색(色)은 계절의 빛과 온기를 느끼게 한다.

이는 벽천 선생의 실경정신을 구체적으로 드

려내며, 관람객들은 작가의 눈길을 따라 마치 풍경 속에 서 있는 듯한 진솔한 미학을 경험해볼 수 있다.

전시는 벽천 선생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일깨우는 장을 마련한다. 또한 스케치와 색채의 대비 속에서 드러나는 벽천 선생의 미학은 예술적 영감을 넘어 삶의 여백을 돌아보게 하는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